



선경직물주식회사.



SK는 오랜 기간 한가지 사업을 수직계열화하겠다는 목표로 인수·합병을 통해 사세를 확장해왔다.



SK CI인 행복날개는 최태원 회장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의도로 만들었다.



故 최종현 회장이 만든 선경경영관리체계(SKMS)는 여전히 SK그룹을 이끌어나가는 철학으로 자리잡고 있다. /SK

선경직물서 시작한 행복날개, 사회적가치 높이기 66년

SK그룹, 오늘 창립 66주년

SK그룹이 8일 66번째 창립기념일을 맞는다. 다른 그룹사들처럼 별다른 행사를 열지는 않을 예정이지만, 꾸준한 성장과 신성장 기대감에 내부 분위기는 남다른 것이다.

7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올 들어 자산 213조2050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보다 23조6740억원이나 늘어난 금액, 처음으로 200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SK그룹은 지난해 시가 총액에서 현대차그룹을 넘어서 2위에 올라선 바 있다. 현대차그룹과 자산 차이는 약 7조원 정도, 조만간 재계 2위로 올라설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SK그룹이 지난해 AJ렌터카와 ADT캡스 등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몸집을 키울 수 있었다고 보고 있다. SK하이닉스가 역대 최고 실적

을 기록한 영향도 컸다.

그 밖에도 SK그룹은 주력사업 대부분을 인수·합병(M&A)을 통해 SK 지분으로 끌어들이었다. 수직 계열화를 정직하게 사업을 확장한 성과다.

첫번째 목표는 더 좋은 옷을 만드는 것이었다. 모태 기업은 선경직물주식회사(현 SK네트웍스), 고(故) 최종건 창업주가 전후 폐허가 된 일본 선경직물 부지를 인수하면서 시작한 회사다.

처음 합병한 회사는 해외통상이다. 선경직물과 수직 계열화를 목표로 상호도 해외선유로 바꿨다. 1969년에는 선경합섬을 설립하면서 아세테이트와 폴리에스터 원사, 봉제까지 사업을 병행할 수 있게 됐다.

1973년 선경직물에 고 최종현 회장이 취임하면서 SK는 섬유 사업 수직 계열화를 마무리했다. 1976년 종합상



별다른 기념행사 개최는 없어 지난해 시가총액 2위에 올라 꾸준한 성장에 분위기 '맑음' 주력사업 M&A 등 성과 보여

사를 설립해 직물 등 제품을 수출하는 발판을 마련했고, 1980년에는 유공(현 SK이노베이션)을 인수하면서 수직계열화뿐 아니라 정유업계까지 진출했다. 1987년에는 북예멘에서 유전도 개발했다.

199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다. 1991년 선경인더스트리(현 SK케미칼)를 설립했고, 1992년에는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을 인수한다. 1998년에는 이름을 SK로 바꾸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

SK 최태원 회장은 SK그룹에 행복한 시대를 선사했다. 1998년 9월 SK주식회사 대표이사에 선임된 후 2004년 SK 자원봉사단을 출범하고 2005년에는 행복경영을 이념으로 발표했다. 2006년에는 행복나눔재단도 설립했다. 최근에는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과 중국 보아오포럼 등에서도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며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SK가 행복을 추구한 데에는 고유의 경영 철학이 숨어있다. 1979년 거 최종현 회장은 선경경영관리체계(SKMS)를 통해 사업을 하는 이유와 지향해야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람

과 행복을 중점에 둔 내용, 최태원 회장은 최근 일부 내용을 시대에 맞춰 개정하면서 행복 추구에 대한 의지를 분명하게 했다.

교육사업 지원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73년 장학퀴즈 후원과 1974년 한국고등교육재단 설립으로 셀 수 없이 많은 장학생을 배출해냈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선대회장들이 정립한 경영 철학을 실천하는 조직이다. 계열사들이 따로, 또 같이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총괄하는 기구다.

앞으로 SK그룹은 미래 먹거리와 세계 진출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일찌감치 쏘카와 과깁클라우드 등 스타트업에 투자해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으며, 최근에는 SK동남아투자회사를 설립하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등에 있는 유망 사업 지분을 사들이고 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LG V50 씽큐' 구매면 중고폰 가격보상

LG, 고객 안심보상 프로그램 운영

LG전자가 5G 스마트폰을 구매하려는 고객들의 부담을 한 번 더 낮춘다.

LG전자는 오는 19일 출시를 앞둔 5G 스마트폰 LG V50 씽큐(ThinQ)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LG고객 안심보상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안심보상 프로그램은 사용하던 스마트폰을 반납하면 중고시세 이상의 보상을 제공하는 혜택이다. 보상을 원하는 고객들은 안심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고, 기간은 5월 말까지다.

대상 기종은 총 42종이다. LG 스마트폰은 전원만 들어오면 구매 시기, 마모 정도, 기능이상 여부 등과 상관없이 각 모델에 해당하는 최고 수준의 보상



LG V50 씽큐와 듀얼 스크린. /LG전자

을, 타사 제품은 반납하는 제품 상태에 따라 책정되는 보상을 제공한다.

LG전자는 LG V50 씽큐 출고가를 국내 최저 수준인 110만원 대로 책정하고 전용 액세서리 'LG 듀얼 스크린'을 무상 증정하는 등 고객들의 부담을 낮추며 초기 5G 스마트폰 시장 선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홈런 풀스윙, 180도로 돌려볼까?"

LGU+, 프로야구 5G 체험존 선택
홈밀착영상 등 VR·AR 존 등 마련

지난 5일 두산베이스와 NC다이노스의 경기가 펼쳐진 서울 잠실야구장 중앙대표소 인근. 날아오는 공을 야구 배트로 치는 타격 소리가 울려 퍼졌다. U+프로야구 5G 체험존에서 일반 관객들이 타자가 된 모습을 20여대의 초고화질 카메라가 촬영했다. 구비된 스크린에는 마치 야구선수가 된 듯 타석 영상이 최대 180도까지 다양한 각도로 생중계 됐다.

'U+VR' 존에서 가상현실(VR) 기기를 쓰니 LG트윈스와 두산베이스 치어리더가 응원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졌다. 옆에 마련된 'U+AR' 존에서는 아이돌 워너와 같은 무대에서 춤을 출 수 있었다.

이 체험은 LG유플러스가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의 주력 콘텐츠인 U+프로야구 5G 서비스다.

이날 U+프로야구 5G 체험존에는 약 5000여명의 프로야구 관객이 몰렸다. 홈밀착영상 체험존에는 특히 야구 꿈나무들이 몰려들이 가장 많은 인기를 누렸다.

홈밀착영상을 체험한 9살 임찬빈 군은 "야구를 좋아해서 체험해봤다"며 "여러 각도에서 내 모습이 움직이는 게 신기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야구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스마트폰에서 LG유플러스의 애플리케이션(앱) 'U+프로야구'를 실행해 TV 중계로는 볼 수 있는 볼펜 상황과 주루 플레이 등을 초고화질로 감상하고 홈에서 타석 영상을 마음대로 돌려볼 수 있다.

이날 체험 부스에서는 관객이 타자

가 돼 스윙하는 장면을 20여대의 초고화질 카메라가 촬영해 자신의 타석 영상을 돌려볼 수 있다. 실제 경기장에서는 홈 플레이트 중심으로 카메라 60여대를 설치해 홈에서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해낸다.

홈런 스윙과 홈 아웃-세이프 상황까지 원하는 속도로 보고싶은 각도로 돌려볼 수 있는 홈밀착영상 한 편을 보는데는 9.9기가바이트(GB)의 데이터가 소모된다고 LG유플러스 직원은 설명했다.

5G는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성의 특성으로 시공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롱텀에볼루션(LTE) 보다 20배 빠른 속도로 끊김없이 고화질의 콘텐츠를 감상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5G 시대 이러한 실감형 콘텐츠를 데이터 걱정없이 즐길 수 있도록 8만원~9만원대의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선보였다.

/김나인 기자 silkni@

5120×1440 게이밍 모니터 'CRG9' 출시

삼성전자, 최초 듀얼 QHD 적용

삼성전자가 게이밍 모니터 'CRG9'을 8일 국내 시장에 출시한다. CRG9 모델은 게이밍 모니터 최초로 듀얼 QHD(5120×1440) 해상도가 적용된 49형 QLED 게이밍 모니터로 최적의 게이밍·멀티 태스킹 환경을 선사한다.

CRG9 모니터는 기존의 'CHG90'의 더블 풀HD(3840×1080) 제품 대비 약 두 배 더 선명하고, 32대 9의 슈퍼 울트라 와이드 화면 비율과 1800R 곡률의

커브드 광시야각 패널이 적용돼 고화질의 콘텐츠를 몰입감 있게 즐길 수 있으며, QLED 기술과 최대 1000니트 밝기를 적용해 더욱 정교한 색 표현이 가능해졌다. 또한 ▲120Hz 고주사율로 부드럽게 화면을 전환해 이미지 잔상을 최소화하고 ▲AMD 프리싱크 2 기술을 탑재해 게임 도중 화면의 끊김이나 잘림 현상을 없애주며 ▲1인칭 슈팅 게임 시 적중률을 높여주는 '가상 표적 기능' 등을 탑재해 게임에 탁월한 성능을 보여준다. /구서윤 기자



홈밀착영상 체험존에 방문한 외국인도 직접 스윙을 하며 5G 콘텐츠를 체험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체험존에 마련된 'U+프로야구 5G' /김나인 기자